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전(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2월 8일 (제780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 (철야주일에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생각의 혁명

생각의 혁명이 삶의 혁명이다. 고착된 생각으로는 발전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다. 이는 국가가 기업이나 개인이나 동일하다. 세상에는 생각의 혁명으로 추락하던 상황에 날개를 단 경우가 많다. 얼마 전 코카콜라 회사가 생각의 혁명을 일으켜 건강에 해롭다며 기피하던 콜라를 날개 돌친 듯 팔고 있다. 어떻게?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콜라병에 사람들의 이름을 써넣은 것이다. 쉽게 말해 콜라 병에 '영희', '만수' 이런 식으로 써넣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 자기 이름이 새겨진 콜라병을 찾고, 애인의 이름을 찾고, 자식들의 이름을 찾기 위해서다. 그들은 말한다. 평생 이 콜라병을 간직할 거라고. 요즘은 '다 잘 될 거야' 등의 문구로 승부하고 있다. 생각의 혁명이 낳은 결과다.

과거로 돌아가 보자. 올림픽에서도 배영 100m는 1분의 기록을 깨지 못했다. 하여마의 1분이라는 말이 있었다. 그런데 그 기록이 깨졌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올림픽에서가 아니라 고등학교 시험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어떻게? 지금까지는 턱할 때 손을 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런데 아돌프 키에퍼라는 선수는 손을 대는 대신 발로 차고 반환점을 돈 것이다. 그래서 올림픽 출전 선수들도 깨지 못한 1분대의 기록을 깼다. 혁명이었다.

1차 혁명은 농업혁명이고, 2차 혁명은 산업혁명이다. 그리고 3차 혁명은 정보지식의 혁명이라면 4차 혁명은 생각의 혁명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 세상은 자원의 고갈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고갈, 아이디어의 고갈 때문에 망한다.

생각의 혁명이라고 하니까 거대한 것이라 생각하는가? No, 집안일을 할 때도 생각의 혁명이 생활을 간편하게, 편리하게 할 것이다.

명작은 고통과 번민의 산물이다

코스타리카(Costa Rica)의 수도 산호세(San José)에서 뽀따레나스(Puntarenas)로, 다시 북쪽 미라마르(Miramar)로, 그리고 다시 산을 넘고 화산지대를 지나며 꼬부랑길을 돌고 돌아 산카를로스(San Carlos)로, 이렇게 3개 도시를 순회하는 일정에 우리는 거의 녹초가 되었다. 산카를로스 집회는 약 천 여명의 성도를 이끌고 있는 아브라함(Abraham) 목사 교회에서 열렸다. 목사님은 오전의 긴 여정으로 몸이 말이 아닐 텐데도, 조금의 피곤한 기색 없이 집회에 혼신을 다하셨다. 새로운 30년의 각오로 나가는 당신의 종을 하나님께서는 새 힘으로 붙잡아주고

다. 그러자 온 회중이 환호성을 지르며 아멘을 연발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도들이 담임목사님과 사모님을 많이 사랑하느구나'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모 나탈리에게서 귀신이 드러나 소리를 지르며 요동했고,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자 귀신이 떠나며 뒤로 넘어졌다. 목사님은 사모의 배에 손을 대고 기도하셨다. 그러자 나탈리 사모는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했다. 배에 손을 대기만 하면 비명을 질렀다. 사모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시며 집회를 마쳤다. 자세한 내막은 숙소로 찾아온 아브라함 목사 가족을 만나고 알게 되었다. 결혼

이 와서 집회를 한다는 것이었다. 그분의 집회영상을 보고 고침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이초석 목사라는 분이 이 도시에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였다. 이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왜 우리가 예정에도 없던 이 도시로 끌려왔는지. 왜 6시간을 꼬불꼬불 산길을 돌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말이다. 숙소로 찾아온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찍은 X-ray 사진을 보여주며 간증하였다. 목사님은 기쁨으로 그녀를 포옹해주며 말씀하셨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바로 당신들 때문



코스타리카 산카를로스 두 번째 도시 집회 광경

계신 것이 분명했다. 많은 병자들이 단상으로 올라왔다. 소경, 귀머거리, 병어리, 암환자, 목발, 휠체어에 의지한 병자들. 안수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더러운 귀신들이 드러나 소리를 지르며 요동했고, 그때부터 마치 쓰나미가 몰려오듯 성령의 역사가 집회장을 뒤흔들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 병어리가 말하는 역사, 목발을 들고 걷는 역사,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이어졌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절정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났다. 병자들의 안수를 끝내며 목사님은 아브라함 목사 부부를 불러 기도해주셨다. 그들에게 아직 자녀가 없는 것을 아시고 태를 열어 2세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셨

한 지 18년이 되었지만 아직 2세가 없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배에 통증이 시작되었다. 5개월 전 부터는 매일 아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자다가도 통증 때문에 몇 번을 깨기 일쑤였다. 병원에서는 자궁과 난소에 혹이 자라고 있으니 여수술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멕시코 병원에서 11월에 수술하기로 날짜까지 잡았다. 그러던 중 나탈리 사모가 한 꿈을 꾸었는데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죽는 게 아닌가. 그녀는 결단했다. 수술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고 기도를 시작했다.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합심기도를 요청했다. 21일 새벽작정기도를 하는 가운데 한 소식이 들려왔다. 한국에서 이초석 목사라는 분

이였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여인을 위해 그 먼 길로 보내셨던 것이다. 이튿날 아침, 다시 숙소로 찾아온 그녀는 아기처럼 잘 잤다며 해맑게 웃고 있었다. 아브라함 목사는 감사를 표하며 축구장에서 대집회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음의 기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세 도시를 돌며 쌓였던 모든 피로는 온데간데없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이 우리 모두를 감싸고 있었다. 좋으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귀신이 드러나 소리를 지르며 요동하고 있다



암 3기로 죽을 자가 고침 받았다



보행보조기를 들고 걷고 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창1:26~28)

우리에게는 다시 기회가 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물과 식물 등 온갖 것들을 만드신 후 6일째 되는 날,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창1:28~30).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그것들을 누리고 정복하며 행복하게 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첫 사람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이 모든 기회는 사라졌고, 정복하며 살아야 할 우리는 마귀에게 오히려 정복당했고, 누리며 살아야 할 우리는 귀신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행복과는 멀어졌습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벧후2:19).

하나님은 죄로 인해 우리를 에덴에서 쫓아내셨지만, 마음이 편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단하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기로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을 뿐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 우리의 죄를 단 번에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대속이란 죄 없는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20:28).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입니다. “기록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와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을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사61:1~4).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목적과 사명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러 오실 예수님, 다시 회복시키러 오실 예수님에 대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대로 정말 이 땅에 오사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위로하시어 삶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권세를 하나님께 넘겨받으셨습니다.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2:6~11).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이양 받으신 예수님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넘기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눅22:29).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 곧 살리는 영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원수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쫓을 수 있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고,

해당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놈을 잡고 탈취당한 것을 다 찾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에덴으로의 회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잃어버린 물질도 찾으셔야지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읽어보세요. 자세히 쓰여 있습니다.

빼앗긴 건강도 찾아야지요. 열 두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

는 예수님을 만나 그의 겹옷만 만지고도 고질병이었던 혈루증의 근원이 말라

그리 원하던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죽은 것도 살아나야지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들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셨다고 난리였지만, 예수님은 죽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살려 그의 누이들에게 돌려주셨습니다(요11).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여전히 빼앗긴 것과 잃어버린 것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안 된다, 팔자다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찾는 자가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소풍가서 보물찾기 할 때 어느 선생님이 제자들이 못 찾는 곳에 보물을 숨겼습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찾을 수 있는 곳에, 조금만 인내하면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기지 않습니까? 또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하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

은 것으로 줄줄 알거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마7:9~11)? 다만 당신이 찾지 않아서 찾지 못하는 것이고,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이고, 두드리지 않아서 안 열리는 것입니다. 이는 게으른 연고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얻게 된 기회도 무가치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지치지 않고 낚시를 소원했던 환자를 보십시오(요5). 2대째 소경이던 바디매오를 보십시오(막10). 매일 재판장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던 과부를 보십시오(눅18). 열심히 찾으니까 찾지 않았습니까? 인내하며 구하니까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조금 해보고 안 되면 ‘나는 안 돼’ 하고, 조금 오래 걸리면 ‘팔자대로 살지 뭐’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기회를 여러분 앞에 공평하게 놔줄 수는 있지만, 기회를 잡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잡느냐 안 잡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살리는 예수님의 영, 곧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사는 영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영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죽어 있는 영을 살리는 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병든 생각, 나약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잘라버리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빌4:13),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생각(막9:23)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런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기회를 얻게 되고, 이 기회를 세상에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헌신은 의지의 문제다!

필자가 섬기는 교회의 부주방장은 올해로 17세.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조우빈 군이다. 그가 주방 봉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2013년, 청소년 연합수련회가 그 계기가 되었다. 당시 중3이던 우빈 군에게 ‘자기 것을 찾으라!’는 총회장님의 메시지는 진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선택한 것이 바로 ‘일류 요리사’의 꿈이었다. 그 꿈을 이뤄나가기 위해 취득한 자격증만도 벌써 여럿. 그런 그를 예의 지켜보던 필자는 이런 제안을 했다.

“조 셰프, 이왕 시작한 거 현장 일도 배우고 하늘나라 상급도 쌓게 교회에서 주방 보조가 되어보는 것은 어때요?”

어린 친구는 곧바로 ‘아멘’으로 화답했다. 학생이기에 주일 오전에 국한된 주방 보조의 일이지만 그렇게 시작된 봉사가 벌써 1년을 훌쩍 넘기고 있다. 어설프기만 했던 칼질도 이제 제법 자세가 나온다. 반찬도 맛깔스럽게 척척 담아낸다.

어지간한 성도들도 부담스러워하는 주방 일. 여름엔 온 몸이 땀에 젖고, 겨울엔 손발이 오그라드는, 결코 쉽지 않은 그 일을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묵묵히 감당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아주 짜~끔 늦은 결혼을(아직은... 40대니까) 준비하기 위해 한 주간 자리를 비워야 했던 주방장 자매님 대신, 부주방장으로서 그 빈자리를 부족함 없이 메워주기도 했다. 기특하기 그지없다. 어리지만 자기가 속한 소속감과 애정이 남다르고, 나아갈 삶의 방향 또한 분명하다. 그리고 보니 믿음과 헌

신은 나이와, 또 직분과는 무관한가 보다. 충북 음성에 있는 꽃동네 입구엔 웬 남루한 옷차림을 한 할아버지의 동상이 서 있다. 고(故) 최귀동 할아버지다. 동상 옆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일제에 강제 징용당해 어디 성한 곳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망가진 최 할아버지. 귀향해 보니 부자였던 고향집은 폐가가 되어 있었고, 가족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생사조차 알 수 없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병들어 구걸조차 나가지 못하는 십 수 명의 거지들에게 밥을 얻어다 먹었다고 한다. 그렇다.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남을 도울 수 있다! 헌신은 의지의 문제지 결코 여건의 문제가 아니다. 헌신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시간이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비단 봉사뿐만이 아니다. 기도도 그렇고 전도도 또한 마찬가지다.

바쁘다는 이유로, 먹고 사는 게 팍팍하다는 이유로 점차 은혜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멀어진 영혼들을 간혹 대한다. 스스로 자신의 삶의 방향은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자문자답해 보라! 은혜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사수하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느니라”(눅16:10).

신현명 목사
yeddo1@hanmail.net

설마 당신이?

- ◆ **인력거 교인** - 심방을 가서 끌어내야만 겨우 교회에 나오는 교인
- ◆ **핑계 교인** - 이렇게 저렇게 항상 핑계대며 교회 잘 빠지는 교인
- ◆ **오락 교인** - 친목회, 운동경기, 야유회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교인
- ◆ **병어리 교인** -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하는 교인
- ◆ **시험 채점관 교인** - 오늘 설교가 어떻다 저렇다 비평하고 남이 이렇대 저렇대 험담에 우수한 교인
- ◆ **유람선 교인** - 이 교회, 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인
- ◆ **광고 교인** - 사업 목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교인
- ◆ **묵상 교인** - 예배를 시작하면 무조건 조는 교인
- ◆ **국회의원 교인** - 한 가정에서 대표로 혼자만 나오는 교인
- ◆ **가시 교인** - 교회의 가시 노릇이나 하는 파괴적인 교인

- ◆ **장례위원 교인** - 부모님의 장례식에 비를 위해서 나오는 교인
- ◆ **감투 교인** - 교회 감투를 안주면 교회에 안 나오는 교인

설마 당신이 이런 유형의 교인은 아니겠지요? 양심에 비추어 뭔가 찝찝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고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취미 생활하는 곳도, 대가를 바라거나 어깨씨름을 하러 나오는 곳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낯을 뵈는 것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마음과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요4:23).

예수중심편집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4:21)



몇 년 전 어느 날 밤, 심신이 몹시 지친 상태에서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내 귀를 확 잡아열더니 이내 눈앞에는 이상이 펼쳐지고 귓가에는 천둥과 같은 음성이 들렸다. “신앙에 부정이 있어서는 안 돼. ‘믿음’으로 부정을 이기고 승리해야 한다. 알았지?” 어느새 눈을 뜬 내 마음에는 이전의 괴로운 마음이 사라지고 편안함과 확신이 자리 잡았다. 그 사건으로 나는 당시 번민을 거듭하다 결정한 중대 사안을 정반대 편으로 뒤엎을 수 있었다. 내가 하고픈 방향으로 가려는 액션을 취하기 직전, 욕기 33장 15~1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바로잡으셨던 것이다.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나를 낳고 얼마 후 예수님을 영접한 어머니의 기도 아래 착실하게 교회를 다니던 내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상이었다. 비록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맘은 없었지만, 주일 어린이 예배 설교시간이 눈 깜짝할 새 지나리만큼 기뻛고, 평상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라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믿었다.

그러나 몇 년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유롭고 편안한 나날을 즐기기도 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내 기도를 시키시는 등 한없는 긍휼과 사랑의 줄로 나를 잡아매셨다. 그리고 급기야는 내 마음을 변화시키셨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삶이 다 무슨 소용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은? 이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내 영혼이 목말라하는 강력한 신호를 무시할 수 없었던 나는 매일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 예수의 이름으로 쫓겼던 귀신이 쫓겨 가는 꿈을 꾸고는 그동안 천근만근 무거웠던 온 몸이 개운해지는 경험을 했다.

그 후 고향에서 서울로 오시게 된 어머니의 인도로 예수중심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당시 담당 교구 전도사님을 모시고 심방예배를 드리셨던 날 밤, 엄청나게 큰 구렁이가 배가 쪽 찢어진 채 널브러져 있는 꿈을 꾸셨다고 했다. 종갓집이기에 믿기 전에는 일 년에 십 수 번

제사를 지내던 우리 집안을 끈질기게 괴롭히던 악한 영적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 아래 큰 타격을 입은 것이었다. 그 일 후 어머니와 나는 더욱 열심을 내고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청년부로 인도함을 받아 그곳에서 이전보다 더 뿌리 깊고 단단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나에게 배울 것은 ‘믿음’과 ‘지혜’라고 당당하게 외치시는 목사님,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오직 ‘기도’라고 겸손히 고백하시는 목사님을 만난 건 내 인생의 큰 축복이자 행운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나를 삶으로 훈련시키시며 때때로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목사님의 힘 있는 설교 말씀을 반복해서 듣다보면 그 믿음이 나에게도 전염됨을 느낀다. 그리고 ‘겉핥기를 다듬되 삼아라’, ‘대를 이을 자식은 곱게 기르지 않는다’, ‘거센 파도가 유능한 해군을 만든다’ 등으로 대변되는 목사님의 생생한 경험에 기초한 말씀은 우리 또한 강인한 훈련 뒤에 오는 빛나는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삼십 년간 변함없는 목사님의 기도 생활.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깨끗할 수 있고 능력이 떠나가지 않는 원동력이 되는 그것,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겸손함은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할 뿐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인지 점검하게 한다.

작고 작은 나, 연약하고 특별히 내놓을 것 하나 없는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전보다 풍성케 하시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합 3:17~18)과 같이 세상의 다른 무엇이 아닌 당신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하시사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케 하시는 나의 아버지.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그분의 기대에 부응할까. 첫 마음으로 돌아가 다시 뛰는 삼십 년, 얼마 전 설교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는 자로 인정받아 영·혼·육의 명품으로 나아가기를, 그리하여 구원받는 자에게나 세상의 망한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고후2:15) 그분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뿐이다. 할렐루야!

이국진



미가엘 목사 가족과 함께

제 이름은 이제부터 미가엘(Michael)!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곳에 오기 전에 분명히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로, 새로운 나라로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금번 코스타리카(Costa Rica) 집회는 가브리엘(Gabriel Molina) 목사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중미 집회를 열고 있는 과테말라(Guatemala)의 왈페르(Walter) 목사가 연결시켜주었다. 산호세(San José) 공항에 도착하니 왈페르 목사와 가브리엘 목사 가족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조금 늦게 도착한 이 선교사 일행과 만나 서쪽으로 약 1시간을 달려 산호세 근교에 위치한 뽀타레나스(Puntarenas)라는 곳에 도착하였다.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호수를 끼고 있어 매우 아름다웠다. 숙소에서 여장을 푼 후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하자 가브리엘 목사가 목사님께 조용히 다가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곳 집회를 마치고 떠나시기 전에 다른 도시에서 하루 더 집회를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목사님은 아주 흔쾌히 답하셨다. “좋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목회 30년을 해왔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려 하는데 그 첫 집회로 방문한 곳이 이곳 코스타리카입니다. 나에게는 정말 큰

물론 그 2시간이 결과적으로는 6시간이 되고 말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있었다(관련기사 1면). 이튿날 점심에 가브리엘 목사는 우리를 그의 자택으로 초청하여 정성스런 오찬을 제공해주었다. 거실 옆에 넓은 공간이 있기로 물어보았더니 사실은 이전 교회에서 시끄럽다고 쫓겨나 한동안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그 심정이야 오죽했겠는가? 그는 성도들과 함께 2년간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주셔서 지금은 약 천 여명이 들어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단다. 이 이야기는 현재 파라과이(Paraguay)에서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이 선교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었다. 문제에 봉착하여 허둥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의연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만이 살 길’이요,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라고 목사님은 늘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그날 저녁 가브리엘 목사 교회에서 집회를 가졌다. 입주의 여지없이 가득 찬 성

전에서 목사님은 설교하시던 중 계속해서 미가엘(Michael)을 불렀다. 몇 번이고 “미가엘, 미가엘” 하시기로 이 선교사도 누구를 부르든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었는데, 담임목사인 가브리엘 목사를 부르는 소리였다. 왜 목사님이 그를 ‘미가엘’이라고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그 전에 공항에서 만나 이야기할 때, 언뜻 그런 언급을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다.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맡은 천사이지요.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군대장관 미가엘 천사도 있지요. 이제는 악한 마귀의 세력을 쳐부수는 미가엘 천사처럼, 하늘의 능력을 받아 이 나라를 건지는 종이 되세요.” 그런데 가브리엘 목사의 자세가 놀라웠다. 그는 이튿날 숙소로 찾아와 자신의 이름을 ‘미가엘’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목사님이 ‘미가엘’이라고 부른 것을 우연이라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전들이 이름을 바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건들이 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사울’이 ‘바울’로, ‘시몬’이 ‘베드로’로 등등, 많은 예가 있다. 이제 가브리엘 목사는 미가엘 목사로서 코스타리카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건지는 대역사의 주인공이 되리라 확신한다. 또한 자신의 아들 이름이 호엘(Joel)인데 목사님이 호수에(Josué)라고 계속해서 부르자 역사 아들 이름도 바꾸겠다고 말했다.

산카를로스(San Carlos)로 떠나는 아침, 교회협의회장인 프란시스코(Francisco) 목사가 찾아와 감사를 표했다. 목사님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자신에게는 큰 축복이라며 앞으로 모든 목회자들과 힘을 합하여 큰 집회를 열겠노라 말했다. 프란시스코 목사가 떠난 후 미가엘 목사는 조용히 목사님께 봉투를 내밀었다. 집회 헌금의 십일조라고 말했다. 사실 프란시스코 목사 교회에서도 목회자 및 실업인 세미나를 열고 헌금까지 걷어주었다. 그럼에도 그는 그냥 돌아갔는데, 미가엘 목사는 믿음의 기본이 되어있는 사람이었다.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목회자부터 먼저 심어야 목회에 물질의 어려움이 없을 텐데, 목회자들이 가장 인색하다.”고 하신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다. 집회를 다니며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건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요,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냐고 통탄하신 말씀이 새롭게 인식되는 순간이었다. 미가엘 목사는 우리가 떠나는 날, 공항까지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길임에도 온 가족이 공항까지 따라와 배웅해주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의리 또한 확실한 걸 본다. 부디 미가엘이라는 그의 새로운 이름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코스타리카에 우뚝 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망한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사랑은 그리워하는 것!
하는 것!
그의 모습을 그리고,
그의 음성을 그리고, 그의
향기를 그리워하는 것.
사랑은 따라가는 것!
그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의 뜻을 따르고,
그의 성품을 따르는 것.
사랑은 닮아가는 것!
그의 사랑을 닮고, 그의 능력을 닮고, 그의
진실을 닮아가는 것.
사랑은 마지막을 같이 하는 것!
그와 같이 동행하며, 그와 같은 곳을 향하며,
그와 같은 곳에 머무는 것.’**

목사님의 저서 중 이 글을 읽으며 남편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떠올리고 참으로 동감하고 은혜 받았던 글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하고 같이 사역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참으로 많이 닮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식성도, 생각도 원래 하나였듯 완벽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싫어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모두 일치하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의 눈빛만 봐도 서로

의 생각을 알 수 있었고, 무얼 필요로 하는지 먼저 알고 서로를 챙겨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이 하는 주의 일들이 더욱 즐거웠습니다. 생각이 하나이다보니 부부싸움을 할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의 종의 소개로 만났고, 기도 중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지만, 남들처럼 시간을 갖고 데이트를 하며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저희 부부에게는 없었습니다. 조금은 늦은 나이에 만나 결혼, 임신, 출산, 선교지 파송, 해외에서의 개척 등이 순차별로 정신없이 이루어졌고,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듯 한 번에 물려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찢먹이 어린아이와 함께 말도, 문화도 다른 해외 선교지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낯선 곳에서 이방인으로 살며 개척하고 두 아이를 기르며 내조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떠난 선교지요, 주의 일이었지만 의욕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야 할 일은 많고 피곤에 몸이 지치자 남편의 뜻을 따르기 보다는 내 의견을 따라주길 바라게 되고, 내가 배려하기 보다는 나를 위해 배려해주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길 바라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조금만 도와준다면 내가 좀 더 쉽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은 더욱 나를 힘들게만 하였습니다. 점점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갔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 불평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주의 일로 밤낮 없이 쉬지 않고 뛰는 남편에게 내 아픔을 보달라고 투정을 부릴 수도 없었고(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하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란 것도 웃을 일이긴 합니다), 몸도 마음도 지친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밤새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아닌 울부짖음이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 때 하나님은 저에게 남편인 (故)박진수 목사가 목사안수 받던 날 소복을 입고 있던 제 모습을 환상 중에 보게 하셨습니다. 그 때 저는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난 이미 남편을 하나님께 드렸었지!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무얼 바라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무엇인가 바란다는 것은 나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요, 욕심은 감사와 사랑을 빼앗아가

고 불평과 미움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고 나니 지옥 같던 내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었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니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배려와 이해를 받기보다는 상대를 배려하려 하였고, 더욱 주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며 오로지 남편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부부는 점점 닮아갔고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사랑함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린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닮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저는 30년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목사님의 뜻을 따르며, 목사님의 믿음과 열정을 닮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단의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 모두가 목사님의 믿음을 닮기를 원하고, 마지막까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가는 그 날까지 같이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인천예수중심교회
박경원 전도사